

호남 좌도 풍물굿 예인들의 활동 양상

-좌도 풍물굿 쇠잡이들을 중심으로-

A Study of Pungmulgut Performers in Jwado, Honam

-Focusing on Soijaebi (Kkwaenggwari players) of Pungmul Gut in Gwado-

양진성(원광디지털대학 교수)

Yang, Jin-Sung

Professor in the University of Weonkwang Digital

1. 들어가며.

지금까지의 풍물굿 예인들에 대한 조사·연구는 판소리, 산조 등과 같이 개인 활동가에 의해 주도되는 예술 영역과 구분 없이 이해하려고 한 오류가 있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는 생계형의 전문 예인집단과 개인에게 집중적인 조명이 비취었다는 것이다. 풍물굿의 경우, 특히 호남 지역의 풍물굿은 굿의 목적·공연집단의 성격·공연내용에 따라 좌도와 우도로 현저히 구분되게 되는데 앞서 지적한 문제대로 생계형의 전문예인들이 주도한 우도 지역 풍물굿과 그 예인들에 비해 좌도 지역 풍물굿 예인들은 그다지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해 왔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도 풍물굿 예인들은 주로 전문적인 예인 집단의 출신으로, 생업으로 공연활동을 전개한 이들이 많아 그 자취를 얻는데 좌도 지역의 예인들에 비해 훨씬 용이할 뿐만 아니라 좌도지역 예인들의 경우 마을단위 공동체 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연집단과 걸립연예극 보다는 마을굿 공연형태를 갖춘 지역이 대부분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각각의 예인에 대한 주목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호남 풍물굿에서도 좌도 지역 풍물굿 예인들에 한정되어 그들에 대한 예인적 삶을 고찰하고, 그들의 활동 전개 양상과 그 특징을 분별해 보고자 한다. 풍물굿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분야의 공연예술에 비해 그 폭이 넓다고 볼 수 없는 실정에서 과거 민속 예술의 현장에서 수고를 다한 예인들의 활동과 삶을 재조명하고 보다 상세하게 기술, 정리하는 것도 풍물굿의 일차적 자료를 축적해 가는 과정적 의미를 지닌다고 사료된다.

그런데 좌도 지역 풍물굿의 경우 상쇠의 주도하에 음악적인 내용은 물론, 공연 성격과 활동영역까지 규정지어 지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강한 것이 특징이다. 그 이유는 타 지역 풍물굿 예인들이 전문예인이 다수를 차지하며, 서로 이합집산이 잦았던 반면, 이 지역에서는 인물간 교류가 흔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동식 공연보다는 마을굿패에 의한 마을 정착형의 공연문화가 지배적이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상쇠를 제외한 다른 역할의 지배가 알려지기 매우 어려운 공연 체계이자 공연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여하간 본 글에서는 이러한 좌도지역의 공연문화적 특성을 감안하여 상쇠나 쇠잡이 출신으로 당대에 인정을 받은 인물들을 집중·조명하기로 하며, 다른 역할의 지배들 중 장고나 소고로 유명한 예인들이 있으나 본 연구대상과 관련한 인물들만을 참고로 거론하고자 한다.

1. 호남 좌도 풍물굿의 갈래와 성격

호남 지역 좌도 풍물굿 예인들의 활동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이 지역 풍물굿의 갈래와 성격에 대해 개괄적으로나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1) 지역적 구분

호남 지방의 풍물굿은 크게 좌도와 우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좌도 권역은 동부 산간지대이고 우도권역은 서부 평야지대로 획을 가르고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좌도 풍물굿은 동북부와 서남부로 이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보다 세밀하게 북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으로 나누고 있기도 하다.¹⁾ 지역성에 의한 풍물굿 권역의 구획 구분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재점검 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그 접근의 편의성과 효율성은 크다.²⁾

좌도지역에 해당하며 풍물굿이 전승되고 있는 지역은 금산, 무주, 장수, 진안, 완주, 전주, 임실, 순창, 운봉, 남원, 곡성, 구례, 화순 등이며 이들을 각각 형태적, 음악적 특징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하면 좌도 동북부 지역굿은 금산·무주·장수·진안·전주·완주·남원(운봉, 아영, 산내면 등의 산간부)일부가 해당되고, 좌도 서남부 지역의 굿은 임실, 순창, 남원 일부(평야부), 곡성, 구례, 화순, 순천 등이다. 기존 연구서에 따르면 좌도 동북부 지역의 굿이 경상도 풍물굿과 비교적 가까우며, 서남부 지역의 굿은 호남 우도 풍물굿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거론되었다.³⁾

현재 좌도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풍물굿은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임실 필봉 풍물굿, 전라북도 지정 문화재인 남원풍물굿과 진안풍물굿,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인 곡성풍물굿과 화순 한천풍물굿 등이 있다. 이 중 화순풍물굿은 기존 연구서들에서 연구대상에서 누락된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화순풍물굿이 좌도에서 우도풍물굿으로 음악적 내용을 달리했다가 다시 좌도 풍물굿으로 선회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일관된 굿 내용을 유지했으리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으로 명시되었다.⁴⁾

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는 호남좌도농악은 전라도 동부지역 농악을 가리키며 금산, 무주, 전주, 진안, 남원, 임실, 순창, 곡성, 구례, 화순, 승주 지역에 전승되고 있다고 하며, 호남우도 농악이 전승되는 지역을 전라도 서부지역이라 하고, 익산, 옥구, 김제, 부안, 정읍, 고창, 영광, 장성, 함평, 나주, 광주, 장흥, 강진, 영암, 무안 등지를 해당지역으로 꼽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호남좌도농악에서는 임실 필봉농악, 화순 한천농악을 조사하였고, 호남우도농악에서는 이리농악과 영광농악을 각각 조사하여 실고 있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농악-풍어제민요편(문화재관리국, 1982) 41쪽~84쪽 참조. 한편 좌도 지역 풍물굿을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고 다시 그 안에서 동·부로 세밀히 살펴 거론한 연구자로는 김익두가 있다.

2) 이른바 좌도 풍물굿은 우도 풍물굿에 비하여 마을굿적인 요소가 더욱 강하고, 단체놀이에서 치중하며, 율놀이 발달했으며...반면 우도 풍물굿은 전문예인집단에 의한 풍물굿이 성행한 곳으로 기교가 화려하고 개인놀이가 비교적 발달했음으로 대비적 특성이 거론되어 왔으나 이 역시 현재적으로는 그다지 의미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좌도 지역중에서도 마을공동체에 의한 굿으로서 마을공동체적 요소가 잘 전승되어진 지역이 있는가 하면, 마을공동체에 의한 풍물굿에서 전문적인 예인 활동으로 인해 굿의 내용이 형식화, 무대화 된 형태의 굿이 전승되고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앞서도 짧게 거론한 것처럼 기존 연구서들의 좌도와 우도 풍물굿의 특징은 많은 부분 현재적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3) 『호남좌도풍물굿』 전북대학교 박물관 총서 12.(전북대학교 박물관, 1994), 10~13쪽 참조.

4) 김현숙, 「호남 좌도풍물굿에 관한 연구-임실과 진안의 판굿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8. 3-4

2) 굿내용과 공연집단의 성격에 의한 구분

전술한 바대로, 현재 좌도 지역 중 풍물굿이 분별적 특성을 가지며 전승되는 지역은 임실, 남원, 진안, 곡성, 화순을 들 수 있다. 이 지역들 중 화순을 제외하고 임실, 남원, 진안 지역은 굿 절차의 구성과 진행 순서, 가락 명칭 등에서 상당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판의 구성은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곡성의 풍물굿은 선행 연구자에 의하면 임실 필봉의 굿 가락과 매우 흡사하다고 하는데, 이는 계보상 좌도 풍물굿 예인들 중 확인되는 기록상으로 처음에 해당하는 전판이 계통의 굿에 공통적인 영향을 받은 까닭으로 해석된다.⁵⁾ 현재 곡성풍물굿은 박대업이 상쇠를 맡고 있으나, 이른바 전판이 계보로 알려진 전 곡성풍물굿농악 상쇠 기창수의 굿내용을 현재의 곡성농악이 그대로 전승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인 절차가 남아있다.⁶⁾

이상 호남 좌도 풍물굿 전승 지역에서 곡성과 화순을 제외한 세 지역, 임실·남원·진안의 풍물굿을 계보 또는 굿내용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면, 임실 필봉의 풍물굿은 전판이 계통의 풍물굿에 영향을 받았으며, ‘전판이-이화춘-박학삼-송주호-양순용-양진성’ 계보로 이어지는 마을굿패에 의해 유지, 전승되어 온 풍물굿이다.⁷⁾ 진안 풍물굿은 아직까지 최상위 계보를 확인할 길이 없으며, 확실한 것은 김봉열 상쇠로 대표되는 마을굿패에 의한 굿내용을 전승하고 있다. 진안 풍물굿은 선행연구에 의하면 좌도 풍물굿 권역에서 무주·진안·장수·전주를 아우르는 북부지역에 해당하는 굿으로 이 지역 출신 명인으로는 쇠잡이의 김수동(진안 용담), 장구잡이의 최상근(금산) 등이 있다. 뚜렷한 계보는 밝혀진 바 없는데, 다만 김수동과 최상근은 각각 자신의 이름을 건 굿패를 조직하여 전문 예인집단과 같은 활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보아 북부지역 풍물굿은 중부와 남부지역의 마을굿 중심 풍물패 활동과는 조금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남원 독우물 풍물굿은 계보상으로 전판이 계통에서 출발하였지만⁸⁾ 초대 상쇠인 유한준이 포장 걸립패를 조직하여 전문 연예집단 성격의 활동을 전개한 이력이 있고, 현재 상쇠 유명철 역시 ‘뜯쇠’ 활동 경력이 상당 기간 있었으므로 지역 정착형의 마을굿패에 의한 굿성격을 담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 <표>는 임실 필봉굿과 진안 중평굿, 남원 독우물굿의 판굿의 구성과 절차굿 진행순

쪽 참조.

- 5) 김현숙은 그의 논문에서 “전판이 계보로 확실한 것은 곡성과 임실 두 고장 밖에 없다”고 하였으며, 곡성을 현지 답사하여 당시 곡성농악의 상쇠였던 기창수가 생전에 녹음했던 판굿 테이프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임실의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한 바 있다. 그가 입수한 테이프는 기창수가 상쇠를 이끌던 때 끝쇠를 맡았던 박대업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다. 김현숙, 앞의 논문, 6~7쪽 참조.
- 6) 곡성농악의 전승계보에서 기창수와 박대업의 관계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 7) 필봉 풍물굿 전승계보에 대해 언급된 책으로는 이보형·정병호, 『필봉농악』(문화재관리국, 1980), 『한국민속 종합조사보고서』-농악·풍어제·민요편(문화재관리국, 1982) 등이 있고, 김현숙, 『호남 좌도농악에 관한 연구-임실과 진안의 판굿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8)외, 수종의 학위논문들에서 거론되었다.
- 8) 남원 풍물굿 역시 전판이 계통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은 김현숙에 의해 밝혀졌다. 김현숙은 1987년 그의 학위 논문을 위한 현지조사와 지면조사 중에 곡성의 기창수와 가까웠던 곡성의 제보자 선관금으로부터 “유한준은 남원사람이고, 기창수에게 배웠는데 북도 농악이 세어서 이름이 먼저 났다”는 제보, 역시 곡성의 박대업 제보자로부터 ‘전판이-이화춘-기창수로 이어지는 곡성농악의 계보중에 유한준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 필봉 풍물굿 양순용 상쇠로부터 “남원 금지농악 상쇠 유명철의 부친은 유한준인데, 이화춘 바로 아래 큰 상쇠이며 부쇠 강삼쇠와 함께 남원 독우물(金池) 사람”이라는 제보들과 함께, 이보형이 조사·작성한 『전라북도국악실태조사』의 ‘남원 금지농악 상쇠 유명철의 부친은 유한준으로 이름난 상쇠였다’는 기록을 교차, 확인한 결과 밝혀 낸 사실이다.

서를 정리한 것이다.

<표> 좌도 지역 풍물굿 판굿의 절차굿 구성과 진행순서

임실 필봉 풍물굿(양순용)		진안 중평 풍물굿(김봉열)	남원 독우물 풍물굿(유명철)	
앞굿	굿내는 가락	어름굿-풍년질굿-인사굿	앞굿	
	질굿(오채질굿)	열두마치굿(채굿과 동일)		어울림굿
	채굿	품앗이굿(미지기굿과 동일)		입장굿
	호허굿	호호굿		풍류굿
	풍류굿	영산굿		채굿
	참굿	춤굿		진풀이굿
	방울진굿	잔지래기(개인놀이)		호호굿
	미지기굿	돌굿		영산굿
뒷굿	가진 영산굿	일광놀이	뒷굿	
	노래굿	도둑잡이		노래굿
	돌굿(춤)	과장굿		춤굿
	재능기영산굿(개인놀이)			등지기굿
	수박치기			미지기굿
	등지기			도둑잡이
	도둑잡이			문굿
	탈머리			재능기

위 <표>를 통해 보면 임실 필봉굿과 진안 중평굿, 남원 독우물굿의 판굿에 쓰이는 절차 굿들의 명칭은 각기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그 구성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세 지역의 마당밧이굿을 자세히 보면 특별한 점이 눈에 뜨인다. 진안농악과 남원농악의 경우, 패물타령·비단타령·업타령·노적타령·액막이타령 등 다양한 고사소리가 있지만 필봉농악의 경우는 마당밧이굿에서 부르는 성주풀이 외에는 고사소리가 많지 않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마을공동체 성원으로 구성된 굿패의 고사소리는 직업으로 삼은 무속예인이 부르는 고사소리와 같이 전문적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진안과 남원의 고사소리는 경기도 남부 무악의 직업 무속인이 부르는 고사소리⁹⁾와 같은 종류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을굿에 직업 소리꾼을 불러다 고사소리를 연행하게 한 영향으로 추측되거나 혹은 고사소리를 할 줄 아는 인물이 굿패에 새로 영입된 결과로 볼 수 있다.¹⁰⁾ 또한 남원농악 유한준굿패와 같이 마을굿에서 출발한 굿이지만 포장걸립 형태의 연행활동을 전개하면서 다양한 지역의 굿 명인들과 교류하면서 생겨난 결과로도 추측해 볼 수 있다.¹¹⁾

9) 고사소리는 화랭이가 부르는데, 화랭이는 경기도당국의 男巫를 이르며, 女巫 와 함께 굿 절차를 이끌어 가며 소리를 연행하는데, 이들의 창법은 ‘어정제 소리’와는 달리 ‘판패개 소리’라 하여 판소리 창법과 같다.

10) 김봉열 상쇠 현존시 그의 굿패에서 실제로 고사소리를 불렀던 이는 상쇠인 김봉열이 아닌 소고쟁이인 고재봉이었다. 연구자의 현장 조사에 의하면 고재봉은 원래 진안 중평마을 출신이 아닌데, 후에 김봉열이 진안 지역에서 제법 알려진 상쇠가 되자 그의 굿패에 합류한 인물이다. 그가 고사소리를 어떤 인물에게 배웠는지는 자세히 확인 할 수 없으나 당시 진안 읍내에 거주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익혔다는 제보만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고재봉은 진안 중평굿과는 상관없이 고사소리를 다른 경위를 통해 익혔고, 후에 중평굿패에 합류하면서 그의 장기를 발휘한 것으로 확인된다.

11) 현재의 남원농악은 유한준이라는 상쇠가 독우물 마을의 성원들과 인근지역 풍물굿 연행자들을 모아 포장걸립 형태의 연행활동을 전개해 유명세를 얻었고, 그의 굿 내용이 강태문-유명철로 계승된 굿이다. 따라서 남원농악은 마을에 깊숙이 안착되어 마을 성원에 의해 연행, 전승된 굿이라기 보다는 출발은 마을굿으로 시작했지만 전문연희패의 연행활동에 맞게 그리고 포장걸립 연행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굿내용을 일부 수용한 ‘전문예인형 굿’으로 계통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승배경을 가진 남원농악에서 부르는 비단타령·패물타령·

이를 정리하여 말하면 연행집체의 활동 전개과정에 따라 실제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과 또 한편으로 같은 권역에 드는 좌도농악 안에서도 성격을 달리하는 계통 구분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결국 필봉농악과 진안농악, 남원농악 삼자의 차이는 연행장소의 고정성과 이동성, 연행집체의 고정성과 유동성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활동 예인들의 행적

호남 지역 풍물굿 예인들에 의한 조사와 기록은 1965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펴낸 조사보고서 『농악 12차』(1965)가 그 첫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박헌봉, 유기룡이 조사, 정리한 이 보고서에는 ‘농악인명록’이라 하여 당시 구전으로 확인되거나 실존하고 있는 풍물굿 예인들의 생몰연대와 이름을 기술하고 있는데, 출생지와 나이 이상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다. 또한 명인들의 출생지 역시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기록되어 있어 후에 밝혀진 사실과는 다른 것도 많아 후학자들로 하여금 혼선을 일으키기도 한다.

호남 풍물굿 예인들에 대한 다음 기록으로는 홍현식·김천홍·박헌봉이 공동 조사·집필한 『호남농악』(1967)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우도 풍물굿 예인들 속에 전판이, 이화춘과 같은 좌도 지역 예인들을 포함시키고, 다시 좌도 지역 풍물굿 예인들의 나열에 또 한번 기록하고 있어 더욱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호남 좌도 지역 예인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은 1980년에 들어서야 일관성있게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보형·정병호에 의해 작성된 『필봉농악』(1980)을 시작으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1982), 『전북국악실태조사』(1982)가 시간이 흐를수록 신상명세에서 벗어나 구체적 활동과 사사관계 파악 등으로 확대되게 되었다.¹²⁾

그러나 기존 보고서들의 내용은 매우 소략하고, 한정적이어서 실제로 예인들의 활동과 재능, 특징 등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관련자, 또는 현지 제보자들을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으며, 그들의 이야기가 매우 소중한 일차자료가 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앞서 밝혀두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위 나열한 호남 좌도지역 풍물굿 예인들에 대한 기존의 보고서와 연구 논문들을 바탕으로 하여 예인들의 활동 시대를 유추하고, 연구자의 조사 결과와 함께 기존 연구자들이 수고를 통해 얻은 제보들을 활용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1) 20세기 이전 출생~해방 이전까지 활동한 예인

① 전판이

전판이의 출생지와 나이를 밝히고 있는 책은 『농악 12차』(1965)년의 것이 최초이다. 이 책에는 당시 다른 지방의 풍물굿 예인들과 함께 호남지방의 예인들을 ‘농악인명록’ 항에

등의 고사소리는 경기남부 무악인 경기도당곳의 화랭이무가에서 불리는 사실과 거의 흡사하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한준 굿패의 포장걸립 연행활동과 현 남원농악의 상쇠 유명철 또한 여성농악단과 여러 포장걸립패에서 활동한 경력에 기인한 타 지역 농악과의 교섭 결과로 이해된다.

12) 이보형·정병호, 『필봉농악』(문화재관리국, 1980),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농악·풍어제·민요편(문화재관리국, 1982), 이보형, 『전라북도 국악실태조사』(문화재관리국, 1982)

기술하고 있는데, 호남지방 예인으로 전판이 이전에 김탕개(당112세, 전북 진안군), 안성암(당101세, 전북 임실군), 이상화(당100세, 전북 진안군)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 전판이는 당96세로 전북 진안군 출신으로 기록되어 있다.¹³⁾ 현재까지 전판이의 정확한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러 기록서와 제보자들의 이야기로 볼 때 1868년이나 1870년 초 태생으로 유추되고 있다. 그 출생지에 대해서도 진안과 김제, 남원으로 각각 엇갈리고 있기는 하나 김제 출생으로 남원, 전주, 임실, 곡성에 이르기까지 좌도지역의 넓은 영역에 거쳐 활동과 영향을 미친 인물로 보인다.

세간에서 ‘전판’이라고도 불렸던 전판이의 활동 무대와 재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술 확보는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 좌도 지역에서 특징적인 곳이 전승되고 있는 임실 필봉, 남원, 곡성 등이 모두 한결같이 전판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 이로 볼 때 전판이는 좌도지역 내에서 과거에 매우 유명한 풍물굿의 예인이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현재로서는 이 세 지역 모두 전판이와의 연관성을 증명할 기록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전통사회의 풍물굿 공연문화상으로 기량이 출중한 풍물굿 예인이 출신 지역을 넘어 다양한 지역에서 공연활동을 전개, 활약했음을 볼 때에 전판이와 필봉, 남원, 곡성 지역 풍물굿과의 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연구자가 진행한 현장조사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한 것인데 장수 출신의 장구의 예인 장두만이 이곳 임실군 청웅면에까지 그 세력을 뻗치고 있었다는 점, 이른바 ‘상쇠 모셔오기’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 유명한 상쇠로부터 굿을 익히는 문화가 필봉풍물굿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된다는 점¹⁵⁾ 등이 그 사례이다.

또한 전판이에 대한 구술 증언은 그리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는데 전 필봉풍물굿 상쇠 양순용과 현 필봉풍물굿 보유자(장구), 박형래로부터 전판이라는 인물이 필봉굿에 끼친 영향력은 확인하였고, 연구자의 현장 조사에서 만난 임실군 청웅면의 박병기 옹¹⁶⁾은 이화춘의 부쇠를 한 ‘양부쇠’¹⁷⁾로부터 ‘전판이’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증언해 주었다. 전판이에 대한 또 다른 제보는 역시 연구자의 현장 조사 중에 만난 임실군 오수면의 마을 상쇠, 전갑철 옹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전갑철 옹은 전판이가 쇠를 잡은 전주의 한 굿판을 참관한 기억이 있는데 ‘재미졌다’는 표현으로 회고를 들려주었다.

전판이의 굿판과 굿가락이 어떠했고, 현재 전승지역의 굿가락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는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나, 우도지역에는 없는 외마치 질굿가락이 그에 의해 좌도 지역에 넓게 수용되었으리라 짐작할 만한 단서는 존재한다. 그 근거의 하나로는 필봉풍물굿

13) 『동악12차』는 무형문화재 관리국에서 1965년 박헌봉과 유기룡이 조사 정리한 책으로, 상당 부분 수정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러나 인명록 부분은 현재로써 현장에서 확인 가능하지 않은 인물들의 이름, 출생지, 나이를 적고 있어 확인여부를 실시할 수 있는 1차자료로써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한편 좌도 지역 예인들의 인물은 다 타계한 예인들 끝에 현존 인물로 기창수를 기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당수 기창수에게 듣거나 확인한 내용들에 근거해서 정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낳는다.

14) 전판이의 영향을 받은 좌도지역 풍물굿으로 박학삼·송주호·양순용으로 이어지는 임실 필봉풍물굿과, 남원시 주생면 옹정리 독우물 마을의 유한준을 중심으로 형성된 현재의 남원 유명철패 풍물굿의 상위 계보도 이 ‘전판이’라는 사람과 연결시키고 있고, 그 인근의 전남 곡성군 곡성읍 죽동 마을의 기창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현재의 곡성 박대업패의 풍물굿의 상위 계보도 이 ‘전판이’로 알려졌는데 그 중간인물로 이화춘이 있다.

15) 필봉 풍물굿 상쇠였던 고 양순용이 부포짓을 배운 김문식 상쇠의 경우도 자신의 지역을 벗어나 한때 인근의 마을인 임실군 강진면 이목리/배나무실에서 일정의 댓가를 받으며 상쇠를 했다고 한다. 그는 ‘부포놀이’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16) 전북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440번지에 거주하는 박병기(91세, 1014생) 옹

17)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에 거주하는 양학동의 부친

보유자인 박형래 옹은 “필봉농악의 초대 상쇠인 박학삼을 필봉마을의 굿선생으로 모시면서 기존의 오채 질굿 대신 외마치질굿을 길군악 가락¹⁸⁾ 가락으로 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박학삼은 이화춘에게 풍물굿을 배운 것으로 알려진 바, 전판이와 이화춘의 계보가 보다 여실히 규명된다면 그 가능성을 보다 높이는 것이라 본다.

② 이화춘

이화춘에 대한 최고(最古)의 기록은 『농악12차』의 ‘농악인명록’으로, 이 보고서에서 이화춘은 좌도 예인으로 전판이 다음 차례로 올라있는데, 당시 90세이며 전북 임실군 출생으로 기록되었다. 이 기록으로 짐작하건데 전판이와는 별반 연배 차이를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¹⁹⁾ 연구자의 조사 결과로는 이화춘의 확실한 출생 마을까지는 알 수 없었으나, 전북 임실군 청웅면 면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주민 호적등본 기록에는 오래된 문서에 대한 ‘기록말소’ 표시와 함께 ‘이화춘(李花春)’이란 이름이 기재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

이화춘은 기존 연구서들에서 한결같이 전판이에 이어 좌도 지역에 두루 영향을 미친 인물로 계보상에 등장한다. 특히 풍물굿 예인들에 대해 현장 조사를 다수 진행하고 그 성과들을 기록해 온 이보형의 논문에는 이화춘이 곡성 풍물굿 기창수에게까지 풍물굿을 사사했다고 한 기창수의 증언을 실고 있다.²⁰⁾

이화춘이 좌도 지역에서 유명한 풍물굿 예인이었다는 사실은 현재 전라남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곡성농악의 현 보유자 박대업²¹⁾으로부터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박대업은 전 곡성농악의 상쇠였던 기창수는 이화춘으로부터 굿을 익혔다고 증언해 주었다. 이에 근거하여 기존 연구서들에서 이화춘이 전판이와 계보상 관계를 맺고 있음은 크게 어긋난 연구 결과가 아니라고 본다.

연구자는 최근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화춘의 출생지로 밝혀진 임실군 청웅면에서 같은 이화춘이 살았다는 마을에서 출생한 제보자 박병기 옹으로부터 이화춘의 출생지와 활동 영역 및 전판이와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제보 자료를 상당량 확보하였다.

박병기 옹의 제보²²⁾에 의하면, 이화춘이 살던 마을은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서창마을이었으며, 현재 살아 있다면 확실히는 모르지만 현재 91세인 제보자보다 약 30세 연상이라고 하니, 약 120여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 한다.²³⁾ 그가 알기로는 진안·장수·순창·남원 근방에서는 ‘이화춘 선생’하면 풍물굿으로 그이를 덮을 이가 없었다고 한다. 이화춘은 한쪽 다리를

18) 풍물패가 이동시에 치는 가락을 ‘길군악’ 가락이라 부른다.

19) 위 기록에서 한 가지 주요하게 생각되는 점은 이화춘과 전판이 이전 인물로 안성암이라는 인물이 이화춘과 같은 전북 임실군 출생이라는 점인데 임실 지역의 풍물굿 문화사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보인다.

20) 이보형, 「풍물굿에서 길굿(길군악)과 채굿」, 『민족음악학』 제 6집, 서울대 동양음악연구소, 1984, 32쪽 각주 2) 참조.

21) 박대업, 현 전라남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곡성농악의 상쇠이자 보유자. 12세때 기창수가 이끄는 굿패에서 사쇠를 맡아 치다가 고향을 등지고 외지로 나갔는데, 다시 82년에 귀향했다고 한다. 그가 귀향한 82년에는 기창수 나이가 이미 82세에 달해, 공연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노쇠해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그는 기창수로부터 실제적으로 굿을 익힌 것은 아니라고 한다. 남원의 유명철 상쇠와는 굿판에서 함께 공연 활동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 이상은 연구자가 박대업 상쇠와 2008년 1월에 나는 면담 내용을 정리한 것임.

22) 이 내용들은 2004년 4월 29일 오후 5시에 청웅면 우정다방에서 현재 필봉 풍물굿 상쇠인 양진성이 전북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440번지에서 태어나 이곳에 계속 거주해온 박병기(남, 91세, 1914년생)씨와의 인터뷰 내용 중 이화춘과 관련한 제보 내용만을 정리한 것이다.

23) 이화춘의 나이는 김현숙의 논문에서 참고 된 『농악12차』의 ‘풍물굿인명록’에 의하면 1875년 출생이 되므로 제보자가 120여세 정도로 기억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여기서 제보자의 제보가 가진 정확성이 입증된다.

많이 절었다고 하는데 굿을 칠 때, 특히 ‘영산 다드래기굿’²⁴⁾을 칠 때 ‘숫썩숫썩’²⁵⁾하고 상모짓을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번개나 회오리바람과 같았다고 한다. 그의 쇠가락은 매우 어려워 이 가락을 따라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청웅면 구고리 마을에서 양학동씨의 부친인 양부쇠만이 겨우 따라쳤다고 한다.

제보자가 이화춘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이화춘 밑에서 부쇠를 친 양부쇠로부터인데 그로부터 ‘전판이’라는 사람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이화춘은 무속집안 출신의 재인이었으며 전판이도 마찬가지로 한다.

이화춘의 자손들은 없으며 굿을 업으로 삼아 생계를 이었다고 한다. 이화춘 생존시 청웅면 일대에서 큰굿을 칠 때에는 진안²⁶⁾에서 ‘장두만’²⁷⁾이라는 장구쟁이를 불러다가 쳤다고 한다. 장두만과 이화춘이 굿을 치면 아주 볼만했다 한다.²⁸⁾ 이화춘의 재능을 짐작하게 하는 일화의 하나로 다른 마을 굿패가 이 마을에 와서 ‘문굿’을 치려면 이화춘이 질문을 내는데 대부분 답을 못하고 쫓겨가거나 이화춘의 ‘문굿’을 다른 데서 온 굿패가 따라 치지 못해 마을에 진입도 해 보지 못한 채 다 쫓겨갔다고 한다.

2) 20세기 이전 출생~정부 수립 직후까지 활동

① 박학삼

박학삼/박판봉(朴判鳳; 1884-1968)은 이화춘 등으로부터 풍물굿을 배운 후, 필봉 마을로 이주하여,²⁹⁾ 기존의 마을굿 수준의 필봉 풍물굿을 걸립패 수준의 필봉 풍물굿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요한 인물이다. 전북 임실군 강진면 면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호적대장에 의하면, 그의 호적명은 박학삼이 아니라 박판봉(朴判鳳)이며, 1884년 11월 10에 태어나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에서 살다가, 1917년 5월에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로 이사해 살다가, 1920년 9월에 다시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 264번지로 이거하여 살았으며, 1968년 12월 6일에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370번지에서 사망했다. 그의 사망 당시의 본적지 주소가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 264번지로 되어 있고, 필봉 마을 사람들의 고증으로 보아, 그가 필봉 마을에 오래 살았음을 알 수 있다.

24) 호남 좌도 지역 풍물굿에서만 볼 수 있는 가락이다. 다른 굿가락보다 음악적 완성도가 매우 높으며, 상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락으로 좌도굿의 유명한 상쇠들은 영산굿에 뛰어났다고 한다.

25) 제보자 박봉기 옹이 영산 다드래기 가락을 의성어로 흉내낸 것이다.

26) 여러 제보들에 의하면, 장두만의 출생지는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인데, 두 지역이 인근 지역이어서 제보자가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27) 장두만/장기준(張基俊; 1887-1947) 장두만은 필봉 풍물굿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화춘의 걸립굿 수장구를 쳤다는 사실에서, 필봉 풍물굿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장두만에 관해서는 진안출신이라는 설과 장수 출신이라는 설이 있으나, 여러 제보들로 미루어 보아 장수 출신으로 보인다.

28) 장두만이 청웅면뿐만 아니라 임실 지역 다른 면에서도 모습을 드러냈음을 연구자가 2004년 실시한 현장조사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29) 현재 필봉 풍물굿의 수장고를 담당하고 있는 박형래의 제보에 의하면, 박학삼은 원래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에서 출생하였으나, 임실군 강진면 수방리로 이주하여 살았는데, 필봉 마을 풍물굿패가 실력이 모자라 다른 마을에 걸립을 갔다가 심한 멸시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필봉 마을 사람들이 박학삼을 필봉 마을로 거의 강제로 이주시키게 되었다 한다. 그 이주의 댓가는 필봉 마을에 그가 살 집터와 집을 제공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다는 조건이었다 한다. 이에 박학삼은 이 조건을 받아들여 필봉 마을로 이거하게 되었으며, 박학삼은 필봉 마을로 이사한 다음 이 마을에서 술집을 하면서 필봉 마을 풍물패의 상쇠를 맡아 하게 되었다 한다.

‘박학삼’은 그의 윗대 상쇠인 ‘이화춘’과 아주 가까운 이웃 마을에 살았으므로, 이화춘에게서 풍물굿을 배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학삼이 살던 마을과 이화춘이 살던 마을은 도량을 경계로 인접해 있다. 제보자 박병기씨도 ‘박학삼’은 ‘이화춘’ 선생과 가까운 마을에 살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제보자가 사는 임실군 청용면 구고리 마을의 양상쇠와 박학삼이 늘 함께 어울려 다녔다고 한다.

박학삼은 이른바 필봉 마을 주민들에 의해 ‘상쇠 모셔오기’³⁰⁾를 통해 필봉 마을에 안착했다는 것, 농사를 짓지 않고 마을에서 굿선생과 술장사로 생업을 이었다는 것³¹⁾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완전한 ‘두령쇠’라기 보다는 출신은 무계 즉, 전문 예인집단이 아니나 재능이 뛰어나 기예를 일정 생계수단으로 삼은 인물로 보아야 한다.

필봉 풍물굿의 실질적인 굿내용은 마을공동체 성원의 그것보다 훨씬 전문적인 기량과 잘 짜여진 판제와 굿가락을 담지하고 있다. 연구자는 필봉풍물굿의 이러한 기량의 발전이 전문 예인이었던 이화춘으로부터 굿을 사사받은 박학삼이 필봉풍물굿 상쇠로 영입된 결과물로 해석된다.

박학삼이 필봉 풍물굿 형성에 미친 음악적 영향에 대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그가 필봉 마을로 이주하기 전까지는 필봉 풍물굿패는 ‘오채질굿’을 질굿/길굿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박학삼이 필봉 마을로 이사를 와 필봉 풍물굿의 상쇠를 맡게 된 뒤부터는 그가 가지고 온 ‘외마치질굿’을 질굿/길굿으로 사용하고, 종래의 질굿/길굿 가락이었던 ‘오채질굿’ 가락은 필봉 풍물굿의 ‘채굿’인 ‘7채굿’ 속에 포함시켜 ‘채굿’을 칠 때에 이 ‘오채질굿’을 치게 되었다 한다.³²⁾

② 유한준

유한준은 1900년 남원 금지면 상귀리에서 출생하였다. 결혼 후에 금지면 용정리로 이사하여 생활을 이어갔는데, 가세가 빈곤하여 생계를 위해 김제 등지로 머슴일을 다니면서 틈틈이 풍물굿 가락을 익혔다고 한다.³³⁾

30) 판소리 명창들에게도 이른바 거주할 만한 집과 생계비를 대접받고 출신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소리 선생과 활동을 전개한 문화가 존재했다. 이른바 일제시대에 담양의 박석기라는 인물이 명창 박동실을 소리선생으로 초빙해 여러 예술가들을 기르도록 후원했던 것은 오랜 일화이고 약간은 성격이 달라졌지만 최근에도 명창을 자기 지역에 초대해 물심양면으로 대접하며 지역 문화를 선도하도록 돕는 후원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연구자가 판소리 선생으로 모셨던 전정민 명창에게 들은 것이다.

31) 고 양순용의 생존시 증언에 의하면 정읍지역에서 장구쟁이로 이름을 날리다 후에 임실군 운암면에 와서 생을 마감한 무계 출신 신기남도 역시 술을 팔며 예인 활동을 지속했다고 한다.

32) 현재 필봉 풍물굿 수장고를 맡고 있는 박형래씨의 제보. 여기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갈 것은 ‘외마치질굿’이 좌도 농악 지역중 동부에서도 남부지대에 해당하는 남원, 곡성에서 주로 많이 치는 가락이라는 점이다. 전판이가 남원 출신이고 그가 좌도지역에서 상당한 권역을 가지고 활동했던 인물임을 상기해보면 박학삼을 통해 외마치질굿이 필봉농악에 유입된 것도 전판이와 모종의 상관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즉, 필봉농악 상쇠계보의 실질적인 상위인물인 이화춘이 여러 제보자들의 언급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전판이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이화춘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박학삼이 외마치질굿을 필봉농악의 길군악 가락으로 유입시킨 인물이라는 사실을 나열해 볼 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기존 보고서나 연구서들에는 전판이가 좌도 농악 중 남원, 곡성, 임실의 계보상 최상위 인물로 기록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써는 전판이라는 인물을 실존적으로 입증할 길이 희미하지만 그러나 분명 현장조사에서 입수된 체보나 기타 형식의 자료가 존재했기 때문에 기존 보고서나 연구서에서 좌도 농악의 계보를 그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본 연구자는 좌도지역 농악 가락의 친연성과 상이점 그리고 가락의 유통관계를 통해 계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33) 김정현, 「남원농악의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 논문, 2003, 14쪽 참조. 『농악12차』에는 유한준이 김제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와전되거나, 당시 조사에 구술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기창수가 잘못 알고 있었을 가능

유한준은 앞 장의 각주에서 잠시 짚었듯이 전판이 계보로 이어지는 풍물굿을 익힌 것으로 판단된다. 남원 독우물굿에 대해 연구한 김정현은 유한준이 기창수와 함께 전판이에게 직접 사사 받은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그 사실여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³⁴⁾

유한준이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해방 이후 생겨난 민속예술경연대회의 배경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예인이 활동하던 당시 호남 지역에서는 우도 풍물굿 다수의 명인들로 구성된 정읍농악단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 시기 유한준, 강태문, 김수동, 장두만, 최상근 등 좌도 지역 풍물굿 예인들이 대회참가를 위해 걸집하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자, 유한준이라는 이름이 세간에 회자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예인은 포장걸립패를 조성하여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유한준이 주축이 된 포장걸립 활동에 함께한 사람들은 남원 금지면 독우물 출신의 사람들이 많았고, 남원 인근을 중심으로 포장걸립, 마당밧이, 각종 대회 참가, 군소 행사 참가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 활동을 전개했다고 한다.³⁵⁾

유한준이 당시 좌도 지역에서 매우 이름있는 상쇠였음은 전 필봉 풍물굿의 상쇠 양순용에 증언³⁶⁾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한준의 활동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다. 유한준은 1952년에 아주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되는데, 남원 인근인 순창군 팔덕면 월곡리에서 당시 그 지역에 빨치산이 출현하여 야간 농악공연을 금지했던 치안당국의 금지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진행한 결과 고초를 겪게 된 것이 원인이 되어, 이듬해 사망하고 말았다. 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긴 공백은 그의 밑에서 부쇠를 치며 활동을 함께한 강태문이 금지면 독우물 출신의 사람들을 규합하여 ‘독우물농악단’을 조직하고 상쇠를 맡아 1958년까지 활동을 이어갔다고 한다. 이후 구성 인원과 활동 근거지가 독우물이 아닌 남원시내의 ‘조산동농악단’, 광한루 인근의 ‘천거리농악단’ 등으로 바뀌게 되면서 유한준에서 비롯된 남원 독우물굿은 시들어 갔으며, 아들인 유명철이 남아있던 ‘천거리농악단’마저 당시 장구로 이름을 얻어 굿패를 조직한 ‘최상근 일행’에 합류되면서 사실상 한때 좌도 지역을 대표했던 ‘유한준 굿패’의 이름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의 활동이 세간에 알려져 꽃을 피운 시기는 그리 길지 않았지만, 그의 재능과 포장걸립 등의 활발한 연행활동은 전문예인집단 출신 위주의 풍물굿이 아닌 마을굿 성향³⁷⁾이 짙은 좌도 풍물굿의 예술적 영역을 넓혔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3) 20세기 초·중 출생~1980년 이전까지 활동

① 강태문

성도 있다.

34) 이화춘에게 굿을 배운 전 곡성농악 상쇠, 기창수의 경우 1895년 생으로 1875년생 이화춘과 약 20세 가량 차이가 있고, 1869년 출생을 짐작되는 전판이와는 약 25세의 차이를 가진다. 유한준은 1900년 출생으로 기창수와는 5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기창수가 17세가 되어서 풍물굿에 입문하고, 이후 이화춘에게 굿을 배웠다는 기록과 구술 증언은 있으나, 기창수 스스로가 전판이에게 직접 굿을 배웠다는 생전 증언은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기창수와 비슷한 시기에 굿을 익히고, 활동을 전개한 유한준이 전판이에게 직접 굿을 전수받았다는 견해는 유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35) 김정현, 앞의 논문, 14~20쪽 참조.

36) 양순용은 “유명철의 부친은 유한중(준)인데 이화춘 바로 아래의 큰 상쇠이며 부쇠 강삼쇠와 함께 남원 도구물(金池) 사람”이라고 하였다.

37) 여기서의 ‘마을굿 성향’이라 함은 전문예인집단 출신이 아닌 마을 공동체 집단으로 이뤄진 굿패와 그들의 공연 제 요소들을 동일하게 또는 유사하게 내포, 표출하는 것을 뜻한다.

강태문은 1903년 전북 남원군 금지면 웅정리에서 출생하여 1965년에 사망하였는데, 강삼쇠' 또는 '강상쇠'로 알려진 바 있으며 기록상으로는 『농악12차』에서 처음 보인다. 좌도 풍물굿의 걸출한 상쇠였던 유한준 밑에서 부쇠를 쳤던 그는, 필봉농악의 전 상쇠이자 보유자였던 양순용과 현 필봉농악 보유자인 박형래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유한준과 함께 1950년대 무렵 꽤 유명세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한준 생존시에는 그 그늘에 가려 상쇠로 활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활동력이 밝혀진 바 없고 이후 몇 년간의 활동 정보만을 얻을 수 있다. 1952년 유한준이 갑작스레 사망하게 되어 '유한준 포장걸립패'는 해체되기에 이르는데, 강태문이 금지면 웅정리 출신의 농악인들을 규합하여 '독우물농악단'을 조직하고 상쇠를 맡아 포장걸립은 하지 않고, 마당뿔이 걸립곳에 치중한 공연활동을 전개했다고 한다. 그러나 1958년에는 남원시 조산동으로 이주하여 '조산농악단'을 창단하게 됨에 따라 '독우물농악단'은 활동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조산농악단 역시 강태문이 노쇠하게 됨에 따라 남원시 광한루 인근의 '천거리농악단'으로 재창단 되었다.

좌도 지역 소고쟁이로 유명했던 홍유봉에 의하면 강태문은 '윗놀음'으로는 유한준을 능가할 정도로 뛰어났다고 하나, 군법에는 다소 자질이 부족했다고 한다.³⁸⁾

② 기창수

기창수는 전남 곡성군 출신으로 『농악 12차』에는 당67세로, 이보형의 논문에는 을미생으로 기록되었으며 1983년에 타계하였다. 이보형의 현지조사를 통한 기록에 의하면, 기창수는 17세부터 임실 출신 이화춘 문하에서 풍물굿을 수업했고 28세부터 상쇠를 맡았다고 한다.³⁹⁾

지금까지 좌도농악에 대한 보고서와 연구서들에 의하면 기창수는 전관이 계보에 속하는 굿을 연행한 인물로 보인다. 그가 이화춘에게 굿을 배운 것은 틀림없고, 앞서 이화춘과 전관의 관계가 여러 구술과 정황들로 확인되는 것을 볼 때, 기창수 역시 전관이 계보를 따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기창수의 활동 행적은 자세히 밝혀진 바 없으나, 현 곡성농악의 상쇠 박대업으로부터 그가 직업적인 예인이었다는 제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⁴⁰⁾ 기창수가 지역에서, 특히 호남 좌도농악 예인들 사이에는 꽤 알려진 인물이었음은 여러 간접적인 정황들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최초의 농악 조사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농악 12차』에 현존 인물로는 유일하게 기재된 점과, 그의 진술들이 『농악 12차』는 물론 이보형의 『전라북도 국악실태조사』 보고서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⁴¹⁾

둘째는 유명철, 홍유봉, 박대업 등 좌도지역 풍물굿 관련 인물들이 기창수와 함께 여러 굿판을 함께 했던 경험담으로부터 그가 좌도지역에서는 상당히 넓은 영역에서 활동했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는 기창수와 생존시 가까웠던 인물의 제보에서 유추해 보건데, 기창수와 절친했던 선

38) 김정현, 앞의 논문, 21~23쪽 참조.

39) 이보형, 앞의 논문, 32쪽 참조.

40) 연구자가 2008.1월에 박대업 상쇠에게 제보받은 내용.

41) 『호남농악』(1967)의 조사자 중 1인인 홍현식은 생존시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1960년대 조사 당시 호남좌도 지역 농악예인들에 대한 정보는 조사자와 제보자들이 다방(차집)에서 만나 인터뷰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말해준 바 있다.

판금의 제보⁴²⁾를 그대로 인용해 보면 “유한중은 남원사람이고, 기창수에게 배웠는데 북도(北道)농악이 세어서 이름이 먼저 났다.”고 한다. 유한중은 남원 독우물긧의 상쇠 유한준으로 밝혀졌는데, 유한준이 기창수에게 배웠다는 사실은 더 이상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논외로 하고, 다만 기창수가 전판이-이화춘으로 이어지는 계통의 농악을 연행했으며, 꽤 이름을 얻었던 것만은 사실이라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기창수의 판제와 가락은 1975년 8월에 녹음한 자료가 국립문화재 연구소에 소장되어 있으며, 2002년 CD로 기획·제작되어 발행된 상태에 있다.⁴³⁾

4) 20세기 초·중 출생~2000년 이전까지 활동

① 김봉열

김봉열은 전북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중평마을 출생으로 호적에는 1914년생으로 되어 있다. 출생부터 타계까지 이 마을에서 줄곧 농사와 목수일을 생업으로 삼으며 살았고, 진안 중평마을의 토박이였다.

김봉열은 18세때 진안군 백운면 주천 마을에 살던 김인철(작고, 당 139세 정도)이라는 인물에게 2년간 수시로 굿을 배웠는데, 20세때 진안군 마령면에 살던 하정수(작고, 당 108세 정도) 밑에서 중쇠를 쳤으며, 25세부터 중평마을의 상쇠를 했다고 한다.⁴⁴⁾ 이렇게 본다면 현재 진안 중평마을굿으로 알려진 진안농악은 실제 김인철의 굿이 김봉열을 통해 중평마을에 수용, 안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봉열은 산간지역 마을굿의 선이 굵고 빠른 쇠가락을 장기로 많은 굿판을 공연하며 그 이름을 알려왔다. 좌도 풍물굿 출신 쇠·장구잡이로 이름을 날린 김수동(쇠, 진안 용담), 최상근(장구, 금산)과 함께 굿을 쳐 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의 생전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치는 굿가락과 김수동, 최상근의 굿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였다.⁴⁵⁾

김봉열은 지역을 벗어나서 공연활동을 전개한 이력이 매우 적은 인물이다. 기록상으로 그의 대외 활동 중 가장 두드러진 이력은 제 1회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호남좌도농악대 소속으로, 김수동(상쇠), 박오복(쇠, 전주), 유명철(쇠, 남원), 최상근(상장고), 정오동(법고, 전주), 한판옥(법고, 장수), 주기환(법고, 금산), 홍귀선(법고, 전주) 등과 함께 출전한 것이다. 당시의 굿패 편성을 두고 김현숙은 “한 농악대의 연주 내용은 상쇠와 상장고에 의하여 좌우되는

42) 김현숙 연구자가 제보받은 내용을 빌려옴.

43)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자료 시리즈(22) 호남 좌도농악(곡성 죽동농악)
국립문화재연구소 기획·제작, (주)서울음반 제조 KICP-058~059, SBCD-4847-1~2
(2CD 비매품 한정판), 1975년 8월 녹음, 2002년 12월 14일 제작, 2002년 12월 16일 발행.
기획·진행:박상국·송민선·박대남, 국문 해설:이보형, 영문 번역:헤이만, CD 디렉터:양정환,
국·영문 해설지(총 20쪽) 내장.
[CD 1(53:54)] 상쇠:기창수, 부쇠:강순동, 장고:김재섭, 징:김종록.
1~8.앞굿(채굿) 9~21.뒷굿(놀음굿) 22~28.결궁굿
[CD 2(59:00)] 상쇠:기창수, 장:박몽규·선판금.
1.앞굿(채굿) 2.호호굿 3.태백굿 4.미지기굿 5.풍류굿 6.된삼채 7.굿거리 8.연풍대 9.등맞추기
10~16.앞굿(채굿) 17.호남 좌도들노래 18.기창수 상쇠가락 19.풍류굿 20.긴삼채 21.등맞추기
22.도독잡이 23.진풀이 24.대포수놀이 25.재넘기 26.탈머리 27.풍류굿 28.인사굿 29.날당산굿
30~41.12채굿

44) 김현숙, 앞의 논문, 4쪽 각주7) 내용과 연구자의 조사내용 정리.

45) 김현숙, 앞의 논문, 5쪽 참조.

바, 그 농악대의 상쇠 상장고는 김수동, 최상근이었고, 그들의 출신지가 진안, 금산이고 보면 북부 계보의 농악을 연주했음이 틀림없다”고 밝혔다.⁴⁶⁾

② 양순용

양순용 상쇠는 1941년 임실군 필봉리에서 태어났고 1995년에 작고하였다. 그가 풍물굿에 입문한 것은 13세 되던 해로, 당시 박학삼 상쇠가 주도하는 굿판에서 끝쇠를 치기 시작한 것이 기점이 되어 14세에 필봉농악의 상쇠를 맡았다.⁴⁷⁾ 당시 그의 나이가 매우 어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애기상쇠’라 했다 한다.⁴⁸⁾ 양순용은 박학삼에게서 가락과 굿 체계를 배운 뒤에 인근의 마을인 임실군 강진면 이목리/배나무실의 상쇠를 하고 있던 전북 순창군 동계의 김문식(1905-1975)⁴⁹⁾에게서 ‘부포놀음’을 배웠다 한다. 당시 임실군 지역에서는 풍물굿 공연이 성행하여 5일장마다 굿판이 형성되고는 하였으며 당시만 해도 농악을 치는 마을이 많아 마을간 농악 경합이 이뤄지고는 하였다. 이 때에 양순용은 필봉마을 주민들과 굿패를 형성하여 필봉 마을굿 뿐만 아니라 여러 곳들을 돌아다니며 ‘소방서굿’ 등 각종 걸립 굿들을 쳤다. 1959년 8.15 해방기념 임실 ‘농악경연대회’에서 임실군 강진면 이목리의 뜯쇠 김문식패와 문방리 송주호⁵⁰⁾패 등과 경연하여 1등을 한 이후로 이 굿패는 임실군 지역뿐만 아니라, 김문식의 활동영역이었던 순창 읍내와 순창군 구림면, 정읍군 산외 등지로 ‘걸립굿’을 많이 다녔다 한다.⁵¹⁾ 그 후 양순용이 20대에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고 굿패를 이루었던 몇몇이 가정 사정을 이유로 고향을 떠나 살게 되어 마을 풍장 굿패가 잠시 와해되고 양순용만이 혼자서 더욱 더 풍장에 몰두하게 되었다. 197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시군농악경연대회가 많이 생겨서 이런 대회에 나가는 30-40명 단위의 시군 농악패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이 무렵에 양순용이 필봉 마을 4H클럽의 10대의 젊은이들에게 풍장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필봉 마을 사람들로 이루어진 60여명 정도의 필봉마을 풍물굿패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후부터 이들을 주축으로 ‘호남농악발표회’ 등 임실군 대표로 각종 풍물굿 굿판이나 경연대회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부터는 차츰 대학생들도 한 둘씩 이 필봉 마을로 ‘풍장’을 배우러 들어오기 시작했고 양순용이 다른 지역의 풍물굿 명인들과도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시기이다. 특

46) 김현숙, 앞의 논문, 5쪽 참조.

47) 20세가 되던 해에는 순창 동계에 거주하며 인근 지역에 뛰어난 상쇠로 인정받아 결국굿 연합 상쇠를 맡아하던 김문식에게 부포놀음을 전수받았다.

48) 2004년 현재 필봉 풍물굿 수장고 박형래씨의 제보.

49) 고 양순용은 김문식이 순창군 동계면에 살았다고 하였으나, 김문식이 살던 마을을 연구자가 직접 조사해본 결과 행정구역 상으로는 이곳이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였음이 확인되었다. 양순용이 김문식이 살던 마을을 순창군 동계면으로 생각한 것은 그 마을이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0) 송주호는 필봉농악 2대 상쇠를 하였지만, 필봉 상쇠를 양순용에게 넘겨준 뒤, 그의 본 거주지인 문방리에서 다시 마을굿패를 형성하였다.

51) 연구자의 어린 기억에 이 마을 남쪽 2km 지점에 있는 강진면 면소재지의 ‘갈담장’ 장날에는 풍장/풍물 악기를 파는 곳이 있었고, 장날만 되면 그 근처에는 인근 각 지역에 사는 굿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며, 그들은 이곳에 모여 온종일 굿을 치고 놀다가 새벽녘이 되어야 해산하여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양순용(1942-1995)씨도 그런 사람들 중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양순용은 이 ‘갈담장’의 쇠쟁이였으며, 그와 한패를 이룬 쟁이들은 필봉 마을 출신의 장구쟁이 유복천, 임실군 덕치면 출신의 소고쟁이 조연섭, 임실군 강진면 갈담 출신의 박중윤, 필봉 마을 출신의 징쟁이 김영렬 등 10여 명이였다. 이 당시 치배들은 특별한 치복을 따로 입고 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상복들을 입고 쳤다. 이 갈담장 장날 굿판에는 굿을 보는 사람들도 많았으며, 술도 마시고 노래도 하고 소리도 하고 유행가도 불렀다. 술은 굿을 보는 사람들이 샀던 것 같다. 새마을 운동 이후에는 마을 농악이 더욱 쇠퇴했으며, 이 갈담장 굿판이 굿의 보존 역할을 한 썬이었다.

히 양순용은 신기남⁵²⁾ 명인과 매우 잦은 만남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큰곳을 칠 때는 대부분을 함께 했다고 한다.

양순용이 본격적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77년도에는 서울 국립극장에서 주최한 ‘호남농악발표회’에 전사중, 전사섭 등 우도 지역 명인들과 함께 쇠잡이로 참가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그는 물론 필봉농악까지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977년 6월에는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차하상’을, 그 다음해인 1978년에는 다시 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장원상을 수상하여 필봉굿이 전국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다.⁵³⁾ 1980년 8월에는 문화재관리국/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발굴·보존 정책의 일환으로 이 마을에서 ‘제1회 호남 좌도 임실 필봉농악 발표회’를 갖게 되었으며, 같은 해 10월에 제주도에서 열린 ‘제21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이 마을의 굿패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호남 좌도 임실 필봉농악단’이 장원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또한 1983년도에는 전북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의 ‘남원 삼동굿’이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양순용을 이 ‘삼동굿’의 상쇠로 초청하였고, 이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양순용 상쇠의 명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화려한 수상경력이 쌓이게 되면서 필봉굿을 배우기 위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됨에 따라, 1995년 그가 작고하기까지 그에게 필봉농악을 직접 전수받은 이들이 4만여명에 이르렀다.

한때 양순용 상쇠는 경제적 이유와 필봉마을에서의 농악단 활동 유지가 여의치 못해 마침 남원 삼동굿을 통해 맺어진 인연과 그들의 제안으로 남원시 보절면 금다리 호동마을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활발한 공연활동과 필봉굿 전수교육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한때 필봉마을에서 풍물굿 공연은 잠시 주춤해졌으나 양순용의 계획으로 1987년 2월에 7년만에 ‘제2회 호남 좌도 임실 필봉농악 발표회’를 개최하였고 이 때 문화재관리국 무형문

52) 신기남: 신기남은 애초 우도풍물굿의 장고 예인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신기남의 고향은 정읍이고, 그가 풍물굿을 익힌 스승은 정읍풍물굿단 출신 장고예인인 김홍집이다. 또한 그가 젊은 시절 공연활동을 전개한 지역과 그에게 장고로 실력을 인정받은 곳도 우도 풍물굿 지역이었으나, 전북 임실군 운암면으로 이주해 와 작고할 때 까지 정착하여 살았다. 그의 이주는 문화적으로 볼 때, 우도 풍물굿 권역에서 좌도 풍물굿 권역으로의 이동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운암면으로 이주 후에는 우도 풍물굿 예인·집단과의 교류보다는 좌도지역 풍물굿 집단 또는 예인과의 교류가 훨씬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행정권에 소속된 임실 필봉풍물굿의 양순용과 함께 굿판에 서는 일이 많았는데, 주로 판굿 중 ‘개인놀이’를 선보이는 ‘군영놀이’에서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양순용 상쇠의 생전 증언에 의하면 우도굿을 배운 신기남이 좌도굿가락을 치는 필봉풍물굿 판굿을 함께 공연할 때 별 어려움없이 적응했다고 한다. 이는 좌도굿이 우도굿에 비해 음악적으로 소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문 예인집단에서 역시 전문예인으로 활동한 신기남이 보유한 재능이 매우 숙련된 것이었기에 가능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증언은 그의 좌도굿가락 인식 방법이다. 그 예를 들면, 필봉풍물굿의 판굿가락을 ‘굿거리형’, ‘자진모리형’ 등으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공연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그가 이전에 학습받은 굿가락 체계 위에서 새로운 가락들을 인식하는 나름의 방식을 뜻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사회의 우도굿과 좌도굿의 굿가락이 전혀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통하는 점이 더욱 많았는데 과정상 서로 다른 지향점과 활동전개를 보이며 음악적으로도 현저히 달라지게 됐을 것으로 본다.

53) 김익두·김정현 공저, 『남원농악』 (남원:한국농악보존협회, 남원시지회, 2006), 199쪽에 실린 유명철과 한 잡지와와의 대담 내용 중에서 ‘1977년도나 76년 무렵 좌도농악을 칠 줄 아는 사람만 모두 모집하여 전주대사습놀이 에 출진, 장원 상을 했었는데 그 당시 유명철 자신이 상쇠를 하고 양순용이 부쇠를 했으며 필봉농악 단원이 상당수 포함되었었다’는 대담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잘 못된 것이어서 정정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1978년 당시 대사습놀이에서 장원을 거둔 것은 ‘필봉농악단’이었으며 당시 상쇠는 양순용이 맡았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농악단원으로 출전했던 필봉농악 단원들과 당시 단원들의 식사를 맡아 함께 참여했던 양순용의 妻로부터도 확인한 것이며, 당시 수상한 상장에도 ‘필봉농악단’이라는 수상자 명단이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당시 사진 자료도 필봉농악보존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 필봉농악이 이 대회에서 장원을 하게 됨으로써 학계와 학자들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되어 1980년 ‘임실필봉농악 발표회’가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화재 담당 관련자들을 비롯한 여러 전문 관련자들도 이 발표회에 참여하였다. 이 해부터 '서울 놀이마당'에서 해마다 2회씩 필봉농악 정기공연을 공연하기 시작하여 2006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88년 4월에는 다시 필봉 마을에서 '제3회 호남 좌도 임실 필봉농악 발표회'를 갖게 되었고, 그 해 8월에 마침내 '호남 좌도 필봉농악'이 '중요무형문화재 제11-마호'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로 양순용 상쇠의 활동과 유명세는 더욱 빛을 발하여 국내는 물론 일본에도 필봉굿 동호회가 결성되게 되었다. 그의 이러한 그의 활동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필봉굿이 전국적으로 활발한 공연과 전승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풍물굿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양순용 상쇠는 '부들상모'로 부르는 일명 '개꼬리상모'로 하는 부포놀음이 뛰어났으며, 개인의 재능기를 뽐내는 '허튼가락의 명수'로 꼽힌다. 특히 '재능기영산' 가락의 구성과 부드러운 쇠가락은 판굿에서 참여자들의 흥을 돋우기로 유명했다.

5) 20세기 중 출생~현재

① 유명철

유명철은 1942년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가 풍물굿을 처음으로 익힌 것은 『굿』 지와의 대담 내용에 의하면 열일곱살이라 하니 1958년 즈음이 되는데 부친되는 유한준패에서 부쇠를 치던 강태문을 첫 스승으로 삼았다고 한다. 『남원풍물굿』에는 유명철이 풍물굿에 입문한 때는 1957년 강태문 상쇠가 이끄는 '독우물풍물굿단'의 마당뺨이굿에 농구로 참가한 것이 시초라고 하여 약간의 착오가 발생한다. 이후 강태문이 남원 시내에서 조직한 '조산농악단'과 '천거리농악단'에서 일정 시기 활동하다, 1959년 남원춘향제 행사에서 함께 개최된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 당시 장구로 유명세를 얻었던 금산의 최상근에게 발탁이 되어 '최상근일행'이라는 포장걸립패의 삼쇠로, 군입대를 한 1961년 직전까지 굿 활동을 전개했다.⁵⁴⁾

그가 군대를 제대한 후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활동무대가 펼쳐지는데, 그 이유는 이전에 몸담았던 '최상근일행' 단체가 당시 여성농악단에 몰린 세간의 주목에 못 이겨 해체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시기 유명철은 남원국악원의 국악원장을 하던 이한량의 권유를 받아 남원여성농악단(춘향여성농악단의 전신)에서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후3-4년간에 거쳐, 김제 백구 여성농악단, 전주 아리랑 여성농악단, 부안 여성농악단, 정읍 태인 여성농악단 등의 단체들에서 개인놀이 공연 형태로 공연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집안의 예사가 끊이지 않아 풍물굿을 접을 결심을 하고 1979년 이후로는 전혀 굿 판에 발을 디디지 않았고, 81년에는 가지고 있던 굿물(악기, 전립 등)도 아는 편에 넘겨주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94년 몇몇 젊은이들의 권유로 남원시내에 강습소를 마련하고 강습을 하기 시작한 것이 재기의 기회가 되어 1998년 전라북도 지정 '남원농악'의 기능보유자로 지정받게 되었다.

요컨대, 유명철이 '독우물농악단'을 이끌었던 강태문에게 굿을 배운 기간은 1957년부터 길게 잡아 2~3년 내외로 보이며, 1959년 한 대회에서 최상근에게 발탁되어 '최상근일행'에서 삼쇠로 활동하다 1961년 군입대하기 까지가 좌도 농악을 익히고, 닦은 시간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여성농악단에서 좌도 농악 공연을 맡아 하다가 79년부터 94년까지 약 15년간의 긴 휴식기를 거쳐 1994년부터 활동을 재개하였고, 1998년에는 전라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54) 이상의 내용은 『굿』지와 김정현의 「남원농악연구」 논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 1999년부터는 남원시립풍물굿단 부단장을 맡아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명철 예인의 굿은 전판이계보로 알려진 유한준의 ‘독우물굿’을 강태문을 통해 전승받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독우물굿 자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을공동체 성원에 의한 ‘마을굿’과 동일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독우물굿의 창시자인 유한준이 포장걸립형태의 공연 활동을 전개했던 것처럼 전문연예성이 짙은 굿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유명철 예인이 전개한 활동력 역시 생계형의 공연활동이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현 남원농악의 성격과 공연 요소들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유명철은 부포짓(상모놀음) 즉 ‘윗놀음’ 뛰어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자신이 직접 인근의 무속인을 개인 선생으로 모시고 익힌 다양한 고사소리들을 보유하고 있다.

3. 예인들의 활동 양상과 특징

본 절에서는 좌도 지역 풍물굿 예인들의 활동 양상과 그 특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동일한 좌도 권역 안에서도 매우 다른 성격을 지닌 굿패와 예인들이 존재하였고, 그들의 공연 활동 전개양상에 따라 호남 좌도 풍물굿의 다양한 면모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좌도 지역 풍물굿 예인들의 공연 활동은 소속 굿패의 성격과 공연 목적 등에 매우 깊은 상관성을 맺고 있다. 굿패의 성격은 대체로 전문 연예집단이나, 마을 공동체집단이나로 분류하여 논할 수 있다. 또한 굿패의 공연 목적은 생계를 위한 공연이나, 마을 공동체 문화적 관습이나?로 구분하여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사회문화적 배경이 근간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시대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천과 또 그에 따른 풍물굿 굿패의 성격 변화와 공연 목적의 변화도 함께 주시해야만 한다.

과거 전통사회의 경우 기량의 우열과 상관없이 직업굿패와 마을굿패의 영역과 공연 양상이 뚜렷이 구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20세기 들어서 특히 해방이후의 풍물굿 예인들의 활동은 양자간 변별점이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즉, 전문 예인으로 출발하지는 않았지만 그 기량이 뛰어나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점점 유명세를 얻으면 굿이 생계와 별개였던 예인도 차츰 생업으로 전환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다.

좌도 지역의 풍물굿 예인들로 세간에 이름이 알려진 이들은 대체로 공동체 집단으로 이뤄진 마을굿패의 상쇠 출신들이다. 기록상으로 상세한 확인이 불가능한 전판이(쇠, 남원)는 논외로 하고, 이화춘(쇠, 임실-무속출신)을 제외한 기창수(쇠, 곡성), 유한준(쇠, 남원), 박학삼(쇠, 임실), 김봉열(쇠, 진안), 양순용(쇠, 임실) 등이 모두 굿패의 상쇠를 맡아 지휘해 온 인물들이다. 그 이유는 과거 이 지역 예인들이 개인적인 기예보다는 공동체적인 굿내용을 가졌고, 그 공연목적이 개인적인 것이 아닌 공동체적 목적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집단을 벗어난 활동 영역을 보이는 인물이 손에 꼽힐 정도였기 때문이다. 이들의 또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출신 마을에서 정착하여 활동을 전개했다는 점이다.⁵⁵⁾ 바로 이러한 정착형 활동 방식이 상대적으로 외부의 주목을 늦게 받게 된 원인이 되

55) 출신지역 정착을 벗어나 대외적으로 뜬쇠 활동을 전개한 예외 사례에는 유한준(쇠, 남원), 유명철(쇠, 남원), 김수동(쇠, 진안), 장두만(장구, 진안), 최상근(장구, 고창), 신기남(장구, 정읍·임실)이 있다.

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과 관련하여 잠시 우도지역 풍물굿 예인들과 비교해 보겠다. 무속집단 출신의 전문예인 집단이 예인의 주류를 이루는 우도지역 풍물굿의 예인들의 폭은 매우 넓다. 즉 쇠쟁이와 장구쟁이를 비롯하여 소고쟁이와 잡색에 이르기까지 그 전문적 기량이 잘 알려져 정리되었는데 그 이유는 좌도와 우도의 공연 활동 영역과 관련이 있다. 즉, 전문 유랑예인 집단의 공연 활동은 마을굿 위주의 굿패 활동 영역에 비해 훨씬 넓은 뿐 아니라 다수 대중과의 만남도 빈번하면서 그들의 재량을 과시하고 이름을 얻을 기회가 좌도굿의 예인들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수적으로도 우세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굿을 중심으로 발달된 좌도지역은 이름을 얻은 쇠쟁이와 장구쟁이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적을 옮겨 활동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악기로 알려진 예인들이 극히 한정적이다. 그러나 보유한 기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단 그들에게 주어졌거나 혹은 선택한 음악활동의 차이이며 우도지역과 좌도지역의 풍물굿 음악문화의 차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양상은 대체로 마을굿패 출신의 예인들은 시대에 따라 공연 활동 목적과 생계가 점점 밀착형으로 바뀌는 양상을 볼 수 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좌도 지역의 예인들의 공연 목적은 마을 공동체의 문화적 필요에 의해 결정되어졌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경제적 활동의 다양화, 예술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농경 생활문화의 변화 및 두레 공동체의 무효용성 등 많은 요인이 과거와 같은 공동체의 굿 연행 목적과는 다른 생업적인 연행으로 밀착되어 가는 양상을 낳은 것이다.

그러나 별도로 유명세를 얻으면 그 지역의 굿이 벌어지는 곳에 이른바 ‘모시기’ 형식의 일시적 참여가 자주 이뤄졌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공연 목적에 따른 활동 양상의 범주에 넣을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게 본다면 생계를 목적으로 공연 활동을 전개한 사람으로는 지금까지 알려진 좌도 지역 예인들 중 유일한 무속 집안 출신인 이화춘의 경우 확실한 생계형 공연활동을 전개한 예인에 해당한다. 또한 직접 걸립굿패를 조성해 포장걸립 형태의 공연활동을 전개한 유한준, 최상근과 그러한 굿패에 적을 담고 활동한 강태문, 김수동, 유명철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기창수 역시도 체보자에 의하면 굿을 생업으로 삼은 이이다.

이와 같이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의 공연활동 전개 양상은 호남 우도지역이나 평택, 안성 등의 전문 연예집단과 매우 유사한 활동 방식을 갖는다. 먼저 이들의 공연 활동, 활동 방식에서 일정의 보수를 체결하여 짧게는 1회에서 길게는 다년간 활동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연 내용도 마을굿 연행 현장의 그것과는 달리 무대형식의 정해진 단시간에 관객을 사로잡기 위해 화려한 볼거리와 기예를 보여주는 데 주력하게 됨으로써, 마을굿의 느슨함과 자연스러운 형식미를 떠나, 좀 더 자극적인 기교 가락과 정돈된 형식을 갖추게 되는 양상을 띤다. 현재 좌도 지역 풍물굿 전승지역 중에 남원 유명철 상쇠의 판굿 체계와 가락이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공동체문화형과 생계형의 중간에 해당하는 공연 활동 목적을 가지는 예인들도 있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임실 필봉 풍물굿의 양순용을 들 수 있겠다. 양순용 상쇠는 농업을 가업으로 삼은 집안에서 태어나, 두레 문화에서 성장했고 풍물굿에 대한 입문도 두레 조직 형식의 마을굿패로서 출발하였다. 이후 개인적 기량을 인정받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받아, 전승활동은 물론 교육적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를 남겼지만, 타계하기 전까지 농업을 주 생계수단으로 삼은 이이다. 그런데 그가 공연 활동에 소요한 시간과 생업인 농사에 쏟은 시

간을 대비시킨다면 절대적으로 공연 활동과 교육활동 등 예인적 활동이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문화적 인식 변화와 상관없이 예인의 개인적 의지에 따라 경제적 목적과 예술적 목적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그는 활동의 근거지를 옮기지 않은 정착형 예인으로 볼 수 있는데, 예인의 이러한 마을굿적 활동 특성이 본인이 주도하는 판굿의 체계와 가락에서도 잘 드러난다.

김봉열의 경우는 가장 공동체문화형의 공연 활동을 전개한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자의적인 선택이 주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소 객관적인 상황에도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좌도지역에서 개인적인 재능이 뛰어난 상쇠로 인식되었다기 보다는 체계있으면서 때묻지 않은 마을굿을 보유한 인물로 먼저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세간에서 주목받기 시점에는 그가 이미 꽤 노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 종목이 아닌 집단 공연 종목은 무엇보다 탄탄한 굿패 조성이 우요선 조건에 드는데 농촌 공동체 사회의 해체가 급속히 이뤄지는 환경에서 마을굿패의 유지·존속이 어려웠던 것이 가장 큰 장애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객관적 환경과 예인의 의지에 따른 활동 양상이 그가 직업적인 공연자로 나서지 않은 배경이 된 듯 하다.

4. 맺으며

본 연구는 호남 풍물굿에서도 좌도 지역 풍물굿 예인들에 한정되어 그들에 대한 예인적 삶을 고찰하고, 그들의 활동 전개 양상과 그 특징을 분별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호남 좌도 지역에서 풍물굿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예인들의 신상명세와 관련 일화를 비롯하여 그들의 활동 양상 및 특징에 대해 주로 지면조사(paper work)와 현장조사(field work) 방법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연구자는 예인들의 활동 양상과 그 특징을 밝히기 위해 소속 굿패의 성격(마을굿패/포장걸립굿패, 공연 내용의 계통(마을굿, 무대형·포장걸립형 연예굿으로 분류), 공연 목적(공동체문화형/생계형으로 분류), 활동 공간(마을굿 정착형/대외적 걸립굿형/변천형으로 분류) 등의 요소들을 깊게 고려하였다.

그 결과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좌도 지역 예인들은 주로 마을굿패 출신의 상쇠나 쇠잡이들이다. 좌도 지역 예인들의 경우 대체로 출신 지역에 정착하여 마을 공동체 성원으로 조직된 굿패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으로 대표되는 별도의 생계 수단을 가졌던 것이 초기적 특징이었다. 그런데 그 외에 해당하는 사례도 있어, 이화춘 같은 예인은 무계집안 출신으로 전문예인의 성격을 띠는 인물이며, 기창수의 경우 출신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후대의 제보자에 의해 굿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은 인물로 알려졌다. 이 시기 예인들의 활동 공간은 주로 출신 마을을 중심으로 한 중,소 범위의 소속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기록이나 구술 상에 등장하는 활동상은 그 역시 소략하지만 주로 생계형 굿패나 예인들에 관한 것이다.

한편 해방 직후에 풍물굿 자체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적극적인 공연 활동을 전개하는 이른바 ‘좌도 풍물굿 뜬쇠’들이 있었는데, 유한준·최상근 등이 자기 이름을 건 포장걸립패를 결성하여 공연 활동을 전개했고, 장두만·김수동·강태문·유명철 등이 그와 같은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대 이후 생계와 공연 활동의 목적이 밀착되는 양상은 더욱 강화되는 데, 그 이유는 사회경제적 활동의 다양화, 예술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농경 생활문화의 변화 및 두레 공동체의 무효용성, 대회식 농악 공연문화 증가 등 여러 배경이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런 환경속에서 직업적인 공연 활동을 전개한 이로는 강태문·신기남·유명철

등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가 예인의 공연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진안 중평곳의 김봉열과 임실 필봉곳의 양순용과 들 수 있겠다. 이 둘 모두 농업을 주 생계수단으로 타계 시점까지도 농사와 예술 활동을 병행한 이들이다. 이 두 예인의 공통점은 마을곳패 본연의 성격인 마을 공동체의 집단적인 목적과 요구에 기반한 활동 전개를 주 골자로 한 것인데, 연구자는 이러한 예인의 활동 목적을 생계형에 대조되는 용어로 공동체문화형이라 정의하였다.

위와 같이 좌도지역 풍물곳 예인들의 삶과 예술 활동을 통해서 드러난 양상들은 단지 개인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좌도 풍물곳 권역의 특성으로 일부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주요어: 풍물곳, 농악, 예인, 공연, 호남 좌도곳, 호남 우도곳 등

참고문헌

- 김익두, 『정읍농악』 (정읍시·전북대 인문학연구소, 2006)
- 김익두 외, 『호남좌도풍물곳』 전북대학교 박물관 총서 12(전북대학교 박물관, 1994)
- 김익두·김정현 공저, 『남원농악』 (남원:한국농악보존협회, 남원시지회, 2006), 199쪽 참조.
- 김정현, 「남원풍물곳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 논문, 2003. 10~23쪽 참조.
- 김현숙, 「호남 좌도풍물곳에 관한 연구-임실과 진안의 판굿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8. 3~7쪽 참조.
- 박헌봉·유기룡, 『농악12차』 (문화재관리국, 1965)
- 양진성, 「호남 좌·우도 풍물곳에 관한 연구-정읍과 임실을 중심으로」,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 2000.
- 이보형, 『전라북도 국악실태조사』(문화재관리국, 1982)
- _____, 「풍물곳에서 길굿(길군악)과 채굿」, 『민족음악학』 제 6집(서울대 동양음악연구소, 1984), 32쪽 참조.
- 이보형·정병호, 『필봉농악』 (문화재관리국, 1980)
- 홍현식 외, 『호남농악』 (문화재관리국, 1967)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농악·풍어제·민요편(문화재관리국, 1982), 41~84쪽 참조.

호남 좌도 풍물굿 예인들의 활동 양상

A Study of Pungmulgut Performers in Jwado, Honam

-Focusing on Soijaebi (Kkwaenggwari players) of Pungmul Gut in Gwado-

Yang, Jin-Sung

Professor in the University of Weonkwang Digita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lives of Pungmulgut entertainers of Honam Jwado region focusing on the history and the characteristics of performances by each individual performer.

Both paper research and field research have been carried out to obtain the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anecdotes, career histor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inguished Pungmulgut performers in Honam Jwado region. The results are as below.

Pungmulgut performers of Honam Jwado region used to be the Sangsoe (a leading kkwaenggwari player of the Pungmul band) or kkwaenggwari players of the village ceremonies. Early characteristics show that they settled in their hometown and took the role of leaders of Gutpae (a performing band of Gutpae) as members of villages. Apart from this, they also did farming as a main occupation for living.

Some cases of exceptions are found, however. Lee, Hwa-Choon is from Shman family, so he is moreover a professional performer. The family background of Khi, Chang-Soo is unknown and he is said to make it as his vocation to play the kkwaenggwari for Gut. It is assumed that the major performing area may have been limited to the regions in and around their hometown. Only brief information about the history of their performances is found from the relevant literatures or oral documents. The information concerns primarily the professional Gutpae (shaman ritual group) or performers who played the kkwaenggwari for their living.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in 1945, a number of groups called 'Jwado Pungmulgut Tteunsoe' were organized to actively stage performances of 'Pungmulgut' as their living profession. Yoo, Han-Joon and Choi, Sang-Geun formed a 'Pojang Geolippae' under their names to do performances and Jang, Doo-Man, Kim, Soo-Dong, Kang, Tae-Moon, Yoo, Myeong-Cheol seemed to be the performing members of such groups.

Such trend has become more prevailing where the purpose of Pungmul performance gets closely tied with means of living. The reasons can be attributed to the more various choices available for social-economic activities, a renewed

understanding on economic value of artistic culture, changes in living culture of farming industry, inefficacy of Dure (communal labor organization), increase of Nongak performances in competition styles and others. Professional performers in such environments include Kang, Tae-Moon, Shin, Ki-Nam and Yoo, Myeong-Cheol and others.

However, environmental changes can not be considered as the absolute influence on the performing activities of those performer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ases include Kim, Bong-Yeol, Jungpyeong-gut performer in Jinan, and Yang, Soon-Yong, Pilbong-gut performer in Imshil. The two performers did farming as their main means of living and combined both farming and performing activities until they passed away. One common point of the two performers is found in that they did their performances in response to the communal objectives and needs of their villages, the most fundamental nature of Maeulgutpae (band for village ritual). The author of this paper defined such kind of performing activities corresponding with the genuine nature of Maeulgut, in contrast to performances for living, as "performing style for communal culture'.

The lives and performing activities of Pungmulgut performers in Jwado region can be understood not only as specific individual history but also as the overall regional characteristics of Jwado Pungmul area.

Keywords : Pungmulgut(farmers' band music), Nongak(farmers' band music), Yein(artistc performers), Gongyeong(performance), Yesul(arts), Honam Jwadohut, Honam Udogut, others.